

“무대와 객석이 따로 없다” 관객과의 소통이 최우선

(3) 아시아 예술극장

지난 9월30일 광주시 남구 사동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서는 이색적인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추진단)이 주최한 아시아 예술극장 국제공모 선정작 창작워크숍이 그것이다.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현장’이란 모토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추진단이 아시아예술극장의 개관 레퍼토리를 미리 엿보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번 워크숍에 첫선을 보인 작품은 던 모스(미국)의 ‘Nameless Forest’(이름없는 숲), 공연창작집단 ‘뒤다’(한국)와 스너프 퍼펫(Snuff Puppet·호주)의 ‘사람과 인형 프로젝트’, 슬라이클립스(한국)의 ‘변이(당선작명·의상 후 장에 스트레칭)’ 등 총 3편. 이들 작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의 아시아 예술극장 개관 레퍼토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추진단이 올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국제 기획안 공모에서 최종순위에 올랐다.

이번 워크숍이 화제를 모은 건 작품 자체보다는 현장의 ‘분위기’ 때문이었다. 3개 작품 모두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는 ‘미완성 상



아시아 예술극장의 중극장 3D 시뮬레이션

주목하면서도 미래 지향적 예술표현을 통해 세계와 공감하는 공연예술센터로 건립된다. 아시아 공연예술의 제작·실연·유통이 동시에 이뤄지는 일종의 ‘팩토리숍’(factory shop) 개념이다.

아시아 예술극장은 크게 대극장(총 6743㎡·2000석 규모)과 중극장(총 3170㎡·550석)의 양대 축으로 운영된다. 대극장은 다양한 규모와 실험적인 콘텐츠 제작·수용이 용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아시아 예술극장의 성패를 좌우할 레퍼토리 발굴을 위해 매년 다양한 기획안공모와 콘텐츠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문화전당의 레퍼토리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준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제공>



추진단이 예술극장 레퍼토리 개발을 위해 실시한 공연 기획안 공모에서 최종 3편에 오른 공연창작집단 ‘뒤다’의 ‘사람과 인형 프로젝트’

무대 경계탈피·기술과 예술 결합한 열린 공간
제작·공연·유통이 동시에 이뤄지는 ‘팩토리숍’
“불거리 풍성한 프로그램 개발이 성패 결정”

태의 기획안으로, 공연예술관계자와 시민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작품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미 만들어진 작품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작품의 초기단계에서 함께 내용을 채워 가는 ‘협업시스템’이었던 것이다.

약 3개월동안 1, 2차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전 세계 13개국에서 총 71개작품(국내 47개, 해외 24개)이 응모하는 등 열띤 경쟁을 벌였다. 최종적으로 낙점된 이들 3작품에게는 작품개발지원금으로 각 2천만원이 지급됐으며 창작워크숍 이후 아시아 예술극장의 공연작품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오는 2014년 문화전당이 개관하면 아시아 예술극장의 상설프로그램으로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나게 된다.

아시아 예술극장은 아시아문화전당의 핵심시설인 5개원 가운데 하나다. 문화창조원의 복합전시관과 함께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최전선 문화공간이다.

아시아 예술극장은 아시아의 전통가치에

이하도록 공간분할이 가능한 가변형 시설로 꾸며진다. 장르의 융합과 해체 뿐 아니라 무대와 객석의 경계탈피, 기술과 예술의 결합 등이 어우러지는 열린 공간이다.

무대 고정형 극장의 중극장은 다양한 장르별 공연과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다목적 시설로 지어진다. 추진단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제작중심의 극장인 만큼 국내외 선진공연장들을 대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다.

하드웨어의 측면에서는 공간분할과 가변형 구조의 독일 사우비네 극장, 스위스 슈프바우 극장, 이탈리아 파카니니 오디토리움, 미국 세리토스 공연예술센터의 컨셉과 유사하다. 소프트웨어에서는 시즌제공연, 축제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가 강점인 미국 P.S.122, 호주 파워 하우스, 영국 바비칸 센터, 미국 BAM(Brooklyn Academy of Music), 대만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 등의 운영사례가 검토되고 있다. 뉴욕 P.S.122는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공연을 선보이는 뉴욕

의 대표적인 극장으로 신예아티스트들의 작품이나 기성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프리젠틱 시리즈’, 실험적인 작가들의 발표무대인 ‘아방가르드 아라미’, 무용계의 최신트렌드를 보여주는 ‘댄스오프’ 등을 운영중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시아예술극장의 성패를 결정하는 건 프로그램이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공간을 갖췄다고 해도 불거리가 풍성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외국 유명공연장들의 운영방식을 추구하고 ‘아시아성’을 내포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3월 처음으로 실시한 ‘아시아 예술극장 국제공모’가 대표적인 사례로 ‘예술극장 레퍼토리 풀(pool)’ 구축을 목적으로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단이 레퍼토리 발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 8월 열린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뮤직페스티벌)의 성공에 고무됐기 때문이다. 동·서양 월드뮤직의 진수를 보여준 뮤직페스티벌은 3일간의 행사기간동안 총 2만

여 명의 관객들이 찾는 등 고품격 공연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당초 아시아 예술극장의 상설프로그램 일환으로 기획된 뮤직페스티벌은 이같은 성공에 힘입어 향후 문화전당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현재 추진단은 아시아 예술극장의 성공적인 개관준비를 위해 예술감독의 선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예술극장의 차별화를 위해 문화전당의 다른 4개원들과 협력·연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새로운 공연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추진단의 박은숙 전문위원(전담기획과)은 “내년에 아시아 예술극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예술감독이 선임되면 개관레퍼토리 발굴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타 원과 연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시아 문화정보원에서 발굴한 한·중 아시아 신화, 설화를 활용한 공연콘텐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현 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지붕개량 금속칼라강판

단 한번 시공으로 평생지붕 걱정 끝!

‘슬레이트 지붕’ 애물단지 전남 주택 ‘석면공포’

최신형 신개발품 대농금속칼라강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수명이 반 영구적이며, A/S가 신속합니다.
- 정부인정 100% KS제품만을 사용합니다.
- 공장직영이므로 고객이 원하는 크기와 색상을 맞추어 드립니다.

다 하루면 시공완료 | 주택, 지붕, 창고 | 공장, 헬스, 덕트

대농산업 | 본사 및 공장주소 | 광주 서구 서창동 530번지 | 062-373-6548 · 6549 | 010-8608-6548

2010 한돈 판매 인증점 선정

한돈 판매 인증점

한돈 판매점이란? 국내산 돼지고기 만을 사용한다는 대한양돈협회 품질보증 제도입니다.

한돈인증점 기준

공짜-해피타임 pm2시 ~ pm6시 사이
일정금액님께 보쌈 2인분 + 고기1인분공짜 = 고기 3인분
(4인분주문 + 고기2인분공짜 = 6인분제공, 포장도가능)
11월 1일 ~ 12월 10일까지 (단 토,일요일 제외)

무진주에서는 쌀, 김치, 돼지고기를 모두 국내산으로 사용합니다.

무진주 푸전 보쌈/족발전문점 MOOJINJOO KOREAN CUISINE

배달문의 062)228-8253
매장예약 062)224-8074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1-4번